

15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목표

1) 목표의 필요성과 의의

- 지속가능한 축산 및 동물 복지의 필요성

2) 현황과 쟁점

- 공장식축산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생산방식 변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 국내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없음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

- 최근 구제역·AI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호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축산 농민에게 경제적 손해와 심리적 상실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은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사용을 통한 밀집 사육, 이른바 ‘공장식

축산'이라는 가축의 생산 방식과 밀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17년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사건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였음. 산란계 닭을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한 결과 진드기가 번식하게 되자, 농민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프로닐 성분 살충제를 사용한 것임. 사건 발생 당시 살충제가 뿌려진 닭은 결국 살처분됨.

- 이와 같이 공장식 축산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저해하며, 공중의 보건 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으로,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신규 설치를 금지하였고,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육 자체를 금지한 바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를 세부목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없음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농장의 운영 실태, 보편적 동물복지 농장의 도입 및 확대 여부, 정부의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예산비율 평가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